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신안건설산업 이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협착 件

안전기획팀
'23.03.27. 10:00

□ 시공사 : 신안건설산업(주)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68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촉진지구 내 주택건설사업(1BL)(신안실크밸리)
- 공사기간 : 2023. 01. 17 ~ 2025. 06. 25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 21층, 공동주택 11개동, 880세대

□ 재해내용

'23.03.11(토) 09시 20분경 천공기(크롤러드릴) 장비 부품(천공로드) 장착 작업 중 회전하는 로드엔 작업복이 말리며 상반신이 끼여 치료 중 사망(03.15)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크롤러 드릴 천공로드 장착장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차량계 건설기계 등 장비 부품 교환 및 수리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거나 안전블럭 등 안전장치 설치 후 작업진행
- ▷ 발파 천공 작업 등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는 작업은 상기 사고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투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작업 실시

■ 언론 보도자료(경향신문 외)

신안건설산업 아파트 공사현장서 끼임사고…치료 4일째에 사망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2023.03.16 11:42



주식회사 신안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경기 이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이천 백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52)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천공기 장비부품을 장착하던 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